

‘161조 XR 시장’ 선점 경쟁... 삼성, ‘무한’ 도전 시작됐다

삼성-메타-애플 ‘3파전’

삼성, 내년 하반기 XR 기기 출시
구글·퀄컴과 ‘프로젝트 무한’ 공개
메타,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발표
애플, 내년 비전 프로 업그레이드

메타, 애플이 선두로 나선 확장현실(XR) 시장에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참전키로 하면서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XR은 사용자가 시각·청각·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제한을 넘어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건강관리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XR 관련 조직 강화 ‘구글과 XR 헤드셋 출시’

19일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313억달러(약 44조5700억원)에서 2028년 1115억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시장에 진출한 메타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구글, 퀄컴과 협업해 내년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한다. 멀티모달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차세대 폼팩터 혁신을 예고했다.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XR 언락’ 행사에서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오른쪽)이 사미르 사맛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부문 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 행사를 개최하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무한은 구글과 삼성전자, 퀄컴이 개발한 XR 특화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되는 첫 번째 기기다. 무한에는 AI 어시스턴트(비서) ‘제미니’가 탑재된다. 제미니는 이용자와 대화하며 계획 수립, 정보 검색 등의 작업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XR 관련 조직을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 삼성 발표 직후 업데이트 공개... 애플은 소니와 ‘맞손’

이에 따라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와 퀘스트를 각각 출시한 애플, 메타플랫폼(메타)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삼성전자가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메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 스마트 안경 ‘레이밴 메타’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이 XR 시장에 재진출한다고 전격 발표한 뒤 나올 만이 이뤄졌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XR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9월 연례 최대 행사인 ‘커넥트 메타’에서 업데이트를 예고한 지 석달 만이다. 새로 추가된 대표적 기능은 인공지능(AI) 비디오 분석이다. 레이밴 메타의 AI 비서에 비디오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해도 AI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은 실시간 언어 통역이다. 레이밴 메타를 쓰고 말하면 원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한다. 상대방의 언어 역시 사용자의 모국어로 바꿔준다.

애플은 비전프로의 부진한 성적을 돌파하기 위해 소니와 손잡았다. 앞서 애플은 비전프로를 통해 XR 시장을 선점했지만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 내 비전 프로 판매량은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17만 대로 추산된다. 기대 판매량인 30만~40만 대를 밑돈 것이다. 구글은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선보였지만 높은 가격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2015년 단종시켰다. 애플 ‘비전프로’는 600g이 넘는 무거운 무게와 고가의 가격(최소 499만원), 킬러 앱의 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판매량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애플도 소니와 협력해 업데이트된 비전프로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 기능에는 비전 프로 헤드셋에 증강현실(VR) 게임 컨트롤러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추얼리얼리티 2(PSVR)용 컨트롤러를 비전프로에서 쓸 수 있는 협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스토어에서 PSVR2 컨트롤러만 별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모델이 ‘U+키즈폰 무너 에디션’을 소개하는 모습. /LGU+

LGU+

30만원대 AI 키즈폰 ‘무너 에디션’ 선보여

LG유플러스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전용 스마트폰 ‘U+ 키즈폰 무너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LG유플러스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생을 위해 내놓은 8번째 키즈 전용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16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G유플러스의 대표 인기 캐릭터 ‘무너’가 바탕화면과 테마에 적용됐다. 제품 출고가는 36만5200원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처음으로 이번 키즈폰에 ‘AI 안심케어’, ‘AI 학습놀이’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 키즈폰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안심케어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부모에게 AI 분석 리포트와 맞춤형 이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는 유해 콘텐츠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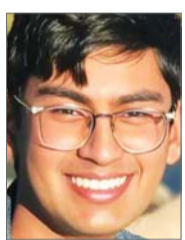
AI 학습놀이 기능은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를 활용해 아이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AI 캐릭터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구남영 기자

AI 시대, 데이터 수집 윤리적 ‘딜레마’

오픈AI 저작권 문제 내부 고발자 사망 저작권 침해 등 지속되는 법적 분쟁 저작권 명확화·합성 데이터 한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선두 주자 오픈AI의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면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관련 저작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미국 지역 매체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전직 연구원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사진)가 지난 11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자택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과 검사관실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발라지는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오픈AI에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재직 중 챗GPT 출시를 앞두고 개발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발라지에 따르면 오픈AI는 전사 소프트웨어 ‘위스퍼’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GPT-4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오픈AI 측은 수치르 발라지의 사망에 대해 “오늘이 엄청나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 비통하다”면서도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만 일축했다.

오픈AI는 그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작가, 프로그래머, 언론사 등으로부터 잇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뉴욕타임스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저작권 문제는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직면하고 있다. 구글은 AI 이미지 생성기 ‘Imagen’ 개발 과정에서 시각 예술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카카오톡, 19개 언어번역 정식 업데이트

‘실험실’ 통해 맞춤법도 교정

카카오톡이 맞춤법 교정 기능과 외국어 번역 기능을 정식으로 추가했다. 카카오는 지난 18일 카카오톡 11.3.0 버전(모바일 앱 기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법 교정과 번역 기능은 지난해 카카오톡 내 새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 기능을 통해 제공돼왔다.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메시지 입력란 하단에 위치한 ‘맞춤법’, ‘번역’ 아이

콘을 통해 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메시지 입력 후 전송 전 ‘맞춤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력란 내 문장의 철자, 띄어쓰기 등을 자동으로 교정한다. 교정 후 ‘입력창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송된다.

번역 기능도 메시지 입력 후 ‘번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영어로 자동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옵션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9개국 언어 번역을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사용량 분석해서 맞춤형 요금제 추천”

과기부, ICT 규제 특례 5건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통신사가 보관 중인 사용자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 사용 데이터를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는 분석을 거쳐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야놀자

포인트 제휴 공동마케팅

CJ ONE 회원, 야놀자 포인트 혜택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야놀자와 서비스 제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야놀자 플랫폼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사의 기술과 역량을 융합하여, 멤버십 서비스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양사 회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의 주요 협력 내용은 CJ ONE 오프라인 주요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시, 적립된 포인트만큼 야놀자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될 예정이다. 또한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CJ ONE 포인트 사용으로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CJ ONE의 B2B 서비스인 포인트바우처 역시 사용처에 야놀자 플랫폼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양사의 마케팅 시너지는 물론 회원들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